

國際化時代 地方政府의 自治能力提高方案研究*

- 濟州道の 國際化推進戰略을 中心으로 -

A Promotional Way of Local Government's Capacity in the times of
Internationalization

— Chejudo's Driving Strateg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

高 忠 錫

(濟州大 行政學科 教授)

張 成 洙

(濟州大 觀光開發學科 教授)

金 振 昊

(濟州大 法政大學 講師)

<目 次>

I. 序論

II. 國際化·世界化 및 地方化

III. 濟州道の 國際化實態 : 그 可能性
과 限界

IV. 21世紀 濟州道の 비전

V. 濟州道の 國際化戰略과 課題

VI. 結論 : 國際化戰略의 推進段階

<ABSTRACT>

The forthcoming 21st century is, passing the era of the Mediterranean and the Atlantic, the Asia-Pacific times. In lin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with opening up the era of local autonomy, each local government realizes that cooperating with foreign local government and its own survival policy might be a good strategy in terms of 'standing-alone policy'.

To support these efforts, Chejudo sets up the new plan as a breakthrough to overcome the waves of 'internationallization', 'globalization'. At this point, it is showing that Chejudo faces up to the current trend and harmonizes the central government's intentions. Thu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hejudo's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ticularly the focus of the strategy of its internationalization, taking advantage of the merits of its geographical-marine locat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s, Chejudo should be built up the infrastructure such as the public management assistance, technical, financial, personnel instructions, program management assistance.

*) 본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육성 중점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序 論

세계는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용어가 국제화·세계화와 지방화이다. 따라서 국제화는 지방화를 수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27선거이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국가전반의 국제화와 더불어 각 지방의 독자적인 국제화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주체가 되어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면서 지역경제의 대외개방과 국제적 노출의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이 국제화를 추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이런 점에서 국제화의 조건이 아직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제주민의 개방적 의식을 고취하고 장기적으로 국제화를 위한 물적·제도적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는 전략이 요청된다.

개방화와 상호의존을 요하는 세계화 추세속에 동북아주도의 환태평양시대는 제주도의 세계화를 역사적 필연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세계화 전략의 추진방향에 발맞추어 제주도의 독자성을 살릴 수 있는 세계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형편에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에서의 綜合經營主體와 國際關係의 行爲者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국가간, 지자체간, 그리고 민간차원에서의 빈번한 접촉의 결과 앞으로 지구촌의 주요 도시가 각자의 문화적 지역적인 특성을 보전하면서 국제화·세계화의 거점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국제화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제주도 국제화의 가능성과 제약점을 점검해보고, 제주도의 국제화가 지향해야 할 21세기 제주도의 비전을 제시하며,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화의 전략과 실천과제를 단계별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행된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제주지역을 근거로 한 자치단체의 국제화 모델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지방공무원과 도민들에게 국제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대효과도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방법으로서 주로 문헌조사 및 해외현지조사¹⁾와 함께 전문가 의견조사를 그 모태로 하였다.

1) 1994년 7월 6일~1994년 7월 14일까지 싱가포르와 일본의 북해도를, 1995년 6월 29일~1995년 7월 7일까지는 일본의 오키나와 중국의 심천·홍콩·마카오·해남성 등을 현지방문하였다. 방문지역 전문가들의 조언과 토

II. 國際化·世界化 및 地方化

1. 國際化·世界化의 意味

본래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는 주권국가들이 공존하는 국제사회에 개별국가들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국익을 위하여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世界化(globalization)는 주권국가의 관할권이나 국경의 존재가 상대화되거나 소멸되면서 인류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인권·환경·복지 문제와 같은 공통의 이념 내지 과제를 추구하고, 나아가서 하나의 세계사회로 통합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국제화보다는 세계화가 훨씬 진전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화는 기본적으로 국가존립을 전제로 하여 국가간의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을 요구하는 國際主義(internationalism)에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국의 이익추구만을 절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던 國家主義(nationalism)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세계화의 이념적 기초인 世界主義(globalism)는 전통적인 국가주의의 이념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모든 것을 하나의 인류사회(human society)내지 세계공동체(world community) 차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화로부터 세계화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세계화에 가까울수록 전통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만 인식되어 오던 개인(自然人·法人)들 및 국제적 또는 국내적 시민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는 반면에 주권적인 존재인 국가의 역할은 감소되면서 민간 부문들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질화되고 통합되어지는 과정을 밝게 되는 것이다(김경원, 1994).

따라서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법, 제도 및 대·내외정책을 어떠한 이념적 기초 위에서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주도의 國際化 내지 世界化戰略'도 우선 이러한 이념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김진호, 1994). 생각건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주의는 아직은 하나의 理想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 뜻에서 최근에 와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의 세계화는 세계주의에 그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는 본래의 세계화와는 차이가 있으며 단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방의 활성화를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국제화 개념과 같은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의 생존전략 내지 발전전략 차원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본 논문은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비전과 도움을 받았다.

‘國際化’로서 용어를 통일하고 ‘世界化’라는 용어²⁾도 그 의미상 국제화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세계화의 用例를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세계화는 국제화의 과정이 심화된 결과 국가 또는 지방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세계적인 비중과 역할이 보다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제화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국제화·세계화는 결국 경제운용, 행정체계, 국민의식, 기업운영, 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화를 추진하는 우선적인 목표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선진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국제화를 통한 先進化는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사회의 주체들이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사회의 모든 질서, 제도, 관행 등이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안문석·김정수, 1994).

2. 地方化의 意味

중앙 정부만이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하는 主體가 될 수는 없다. 地方自治制의 본격적인 실시로 우리의 행정이나 경제운용 방식도 중앙정부 중심으로부터 지방자치체의 의사결정이 증시되는 자율화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중앙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中央集權化로부터 ‘地方分權化’로, 지방자치체나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통제정책으로부터 ‘自律化’를 통한 지원행정체계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內山秀夫, 1985).

지방에 대하여 분권화 및 자율화를 보장하는 ‘地方化’(localization)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이러한 지방화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보면 지방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생각하면 국제화와 지방화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고충석, 1994). 그러나 이러한 지방화 정책은 결국 중앙에 대한 지방의 위치 및 역할을 점차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서 地方自治體 스스로가 중앙 정부와 병행하거나 대신해서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화는 국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국제관계의 의미를 상당하게 변질시키고 ‘國際社會’를 점차 ‘世界社會’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화는

2) 엄밀히 말해서 국제화와 세계화는 다른 의미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용어들을 구별없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김판석, 1994) 참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으로도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화는 중앙 정부에게 집중적으로 귀속되어 있던 거대한 주권적 권력체계가 점차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권력들이 소규모의 지역 단위로 분산 귀속되어진다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다.

지방화의 개념은 地方分權化 및 自律化의 복합개념이다(고충석, 1994: 32). 다시 말하면, 地方化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체로 이양 또는 분산되고 이렇게 귀속된 지방자치체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주민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화의 중요한 과제는 지방분권화와 자율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체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되고 지방이 보다 활성화되어짐으로써 지방자치체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 주민의 삶의 조건과 내용을 형성해 나감은 물론 세계사회 속에서 그 존재 의의 및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화와 연결되는 국제화/세계화의 개념은 국가적 차원을 떠나 지방적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 국제화/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개방화·다원화 및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특징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체가 자율적인 국제관계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경제적 분야는 물론 사회적·문화적 분야를 포함한 총체적인 力量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이 국제적/세계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주체가 되는 현상을 GLOCALIZATION(global localization)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3. 國際化·地方化 時代의 課題

이런 점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체의 실시에 따라 국가 전반적인 국제화와 더불어 각 지방도 독자적인 국제화·세계화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방의 국제화와 지방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각 지방의 경제·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주체가 되어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 지방의 일반적인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지방화, 즉 지방분권화 및 자율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제도·조직을 국제화·세계화의 요청에 걸맞게 개혁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는 중앙정

부 내지 국가차원의 기본 정책과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법·제도·조직의 개혁이란 비합리적·비생산적 비효율적인 내용을 합리적·생산적·효율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탈규제·자율화·개방화·분권화·지방화 등의 요청은 법·제도·조직 개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김종기·주성재, 1994 : 이종오, 1994). 특히 지방정치인 場인 地方議會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와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집단적 민원도 이러한 정치과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議員의 資質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즉 정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진호, 1993).

2)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체는 지방산업의 육성 및 경제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는 부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발전전략 내지 개발의 목표를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에 두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內田孟男, 1991).

각 지역이 자연적·인문적 환경 및 생태계에 적합하고 지방주민이 실생활의 필요에 상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住民主體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및 환경의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발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화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체의 자율적인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지방자치체에 대하여 보다 많은 노력과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Ohmae, 1993).

3) 앞으로의 지방자치체는 國際化·世界化를 통하여 지방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多元的 外交主體의 하나로서 외국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체와는 물론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국제교류 내지 협력을 통하여 經濟的 活性化를 달성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 규범·의식·문화를 고급화, 일류화하여 인류공동체 의식 및 문화감각을 바탕으로 세계사회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국제화·세계화는 곧 지방정부 및 지방주민의 스스로 국제적 규범 및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은 물론 외국 또는 외국인의 이질적인 관습 및 문화도 포용할 수 있는 開放性(openness)과 寬容性(tolerance)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지방차원에서도 모든 규범 및 질서를 국제적·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나가고 의식과 행동을 보편적 행동준칙에 맞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지방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모든 지방 공무원과 주민들이 意識과 思考를 개방적·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국제화를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과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5) 지방화는 地方文化의 육성을 요구한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방의 국제화·세계화가 지방의 고유한 특성이나 正體性(identity)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주민의 의식과 문화는 그 지방의 정신적 자산이며 자랑거리이다. 여기서 의식이나 문화의 고급화·일류화를 말하는 것은 지방주민들이 자신이 의식과 문화를 포기하고 외국의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스스로의 자존의식이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1994 ; 長洲三, 1983).

이는 지방주민으로서 특수한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일 뿐(이은재, 1991), 지방주민들이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 대하여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며 그 지방의 전통이나 문화를 유지하고 보다 고도화시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지방적인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지방의 경제적 분야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제주의 地政學的·地經學的 위치와 현재의 국제화단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실효성있는 지방의 국제화·세계화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그 기반조성 및 구체적인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Ⅲ. 濟州道の 國際化實態 : 그 可能性과 限界

국제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국제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요소들로 나누어 평가하느냐에 따라 서로 엇갈린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역간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할 때 전반적인 국제화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먼저 외국 여러나라와 비교된 우리나라의 국제화수준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나라 15개 市·道の 지방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세계화수준을 유추해 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의 國際化 水準

우리나라의 國際化수준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國際化, 과학기술, 정부부문, 기업경영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國際化가 크게 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각국의 분야별 국가경쟁력 순위

구 분	국내 경쟁력	국제화	정부	금융	사회 간접자본	기업 경영	과학 기술	인적 자원	종합 순위
아르헨티나	40	33	8	36	35	27	37	27	29
호주	23	31	9	16	4	19	20	16	19
오스트리아	17	13	18	13	14	12	9	13	13
벨기에	18	7	42	14	18	17	12	20	19
브라질	44	36	25	37	37	32	29	35	37
캐나다	24	15	19	11	3	16	18	8	12
칠레	11	16	10	15	22	9	27	23	20
중국	12	27	21	44	45	47	26	40	34
콜롬비아	36	42	23	28	46	30	32	42	36
체코	37	25	37	42	41	45	34	31	38
덴마크	16	11	20	7	9	7	11	2	9
이집트	30	24	15	29	21	29	30	34	27
핀란드	29	12	17	23	7	10	7	7	16
프랑스	15	6	35	24	15	21	5	15	17
독일	8	5	13	8	11	14	3	9	6
그리스	41	39	47	40	42	40	39	32	43
홍콩	3	3	2	4	17	8	23	19	3
헝가리	46	44	45	45	39	46	46	37	46
아이슬란드	26	38	28	35	8	24	24	5	25
인도	28	40	30	30	43	39	35	47	39
인도네시아	27	32	31	26	36	38	43	44	33
아일랜드	20	10	29	19	24	23	19	22	22
이스라엘	13	26	36	31	26	18	16	17	23
이탈리아	25	20	46	38	34	26	21	30	30
일본	4	9	27	6	28	4	2	6	4
요르단	34	45	16	39	47	42	47	41	41
한국	6	34	24	34	30	25	15	21	24
말레이시아	5	21	4	18	20	22	33	25	21
멕시코	45	35	39	46	33	41	45	39	44
네덜란드	14	4	26	5	13	11	13	11	7
뉴질랜드	22	23	3	10	6	6	22	12	8
노르웨이	19	30	22	17	①	13	17	3	10
페루	39	37	12	32	32	33	36	38	32
필리핀	33	29	32	27	44	34	42	43	35
폴란드	43	47	43	43	38	44	38	33	45
포르투갈	35	28	34	25	31	37	41	29	31
러시아	48	48	48	48	48	48	48	46	48
싱가포르	2	2	①	①	12	5	10	①	2
남아공	42	43	38	20	19	35	28	48	42
스페인	32	19	40	33	25	31	25	28	28
스웨덴	31	17	33	22	5	2	6	14	15
스위스	10	18	7	3	10	3	4	4	5
대만	7	14	5	12	29	15	8	18	11
태국	9	22	11	21	40	28	31	26	26
터키	38	41	41	41	27	36	40	36	40
영국	21	8	14	9	16	20	14	24	18
미국	①	①	6	2	2	①	①	10	①
베네수엘라	47	46	44	47	23	43	44	45	47

자료: IMD, 「'95년 세계경쟁력 보고서」, 한국경제신문, 1995. 9. 4.일자 4면에서 인용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95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1995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48개 국가 중 1994년도와 같은 24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조사대상에 포함된 27개 개발도상국가 중 7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흥공업국가군(NICS)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IMD는 국내경쟁력, 국제화, 정부 등 8개 부문에 378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각종 통계학적 모델을 이용해 산출한 가중치를 곱해 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총점은 미국을 100으로 한 상대평점으로 환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1995년도 우리나라가 받은 61.8점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미국의 61.8%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는 1994년도의 53.0%보다 다소 나아진 것이기는 하나 국가별 순위로는 여전히 24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이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제화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IMD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 각계 전문가 7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도(한국경제신문, 1995. 9. 4. 일자)에 따르면, 부문별로 볼 때 국가경쟁력 향상정도가 가장 큰 부문은 국제화인 반면 사회간접자본 등은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연구기관별로 국가경쟁력의 평가기준과 방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다음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각각 24위, 15위 및 29위 등으로 평가되고 있는 형편이다.

<표 2 >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관별 비교

연구원		I M D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	국	24	15	29
미	국	1	8	1
일	본	3	9	2
독	일	5	6	5
캐	나	16	10	13
스	위	6	1	3
스	위	6	1	3
싱	가	2	3	7
홍	콩	4	2	4
말	레이	17	12	21

자료: 공보처, 「세계화 지표 연구」, 1995. 1, p. 19.

한편 공보처가 이화여대 김석준 교수팀에 의뢰한 「국제화 지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현단계에서 세계 5위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화수준을 백분율(%)로 측정해 볼 때 종합적으로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평가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는 경제분야만이 40%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 정치 5%, 사회 10%, 교육·문화 15% 등 그

수준이 크게 낙후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국제화 추진전략에 따른 각 단계별 우리나라의 국제화수준을 측정해 보면,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5위를 기준으로 잡을 때 2000년에는 45%, 2010년에는 75%, 2020년에는 1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단계별 국제화수준 (세계 5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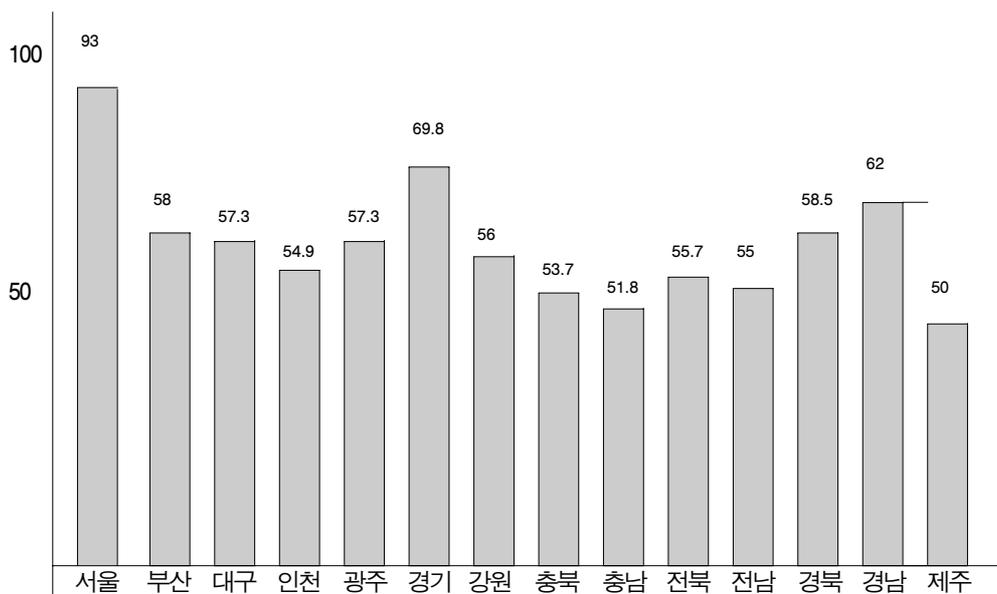
단계별 분야별	현 재 (1995년도)	제 1 단계 (2000년도)	제 2 단계 (2010년도)	제 3 단계 (2020년도)
정 치	5 %	40 %	70 %	100 %
경 제	40 %	80 %	100 %	150 %
사 회	10 %	30 %	60 %	100 %
문 화	15 %	30 %	70 %	130 %

자료: 공보처, 「세계화청사진: 1995~2020」, p. 20.

2. 濟州道の 地方競爭力 水準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995년 6월 “지방화시대의 청사진: 기업가형 지방경영”이란 심포지엄에서 「지방경쟁력」으로서 인적·물적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해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쟁력 평가점수



주) 100점만점이며 50점이 최하점임.

이에 따르면 서울은 경제력·행정효율·인적 자원·문화복지 등 거의 전 부문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아 100점 만점에 평균 93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나머지 市·道는 모두 70점을 밑돌았으며, 2위인 경기도(69.8점)와 3위인 경상남도(62점)를 제외한 12개 市·道는 50점대에 머물러 서울과 지방간의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는 가운데 제주도는 50점으로 가장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3. 濟州道 國際化的 可能性과 制約條件

우리나라의 국제화수준과 제주도의 지방경쟁력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의 국제화수준은 세계 5위를 기준으로 하여 10%에도 못미치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 국제화수준은 그나마 경제분야가 비교적 높을 것이라 짐작되는 바이다. 제주도가 국제화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비된 지역통계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지표의 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여러 전문분야의 안배를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한 「해외 및 도외 거주 전문가들」과 「도내거주 전문가들」 각각 32명씩, 총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³⁾. 조사에 응해준 전문가들의 특성과 국제화에 대한 생각과 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는 각각 <표 4>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해외 및 도외거주 전문가들의 관심과 경험

질 문 내 용	응 답 내 용	응답비율 (%)
정부당국의 세계화 추진시책에 대한 관심도	관심없음	12.50
	관심은 있지만 아는 것이 별로없음	12.50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를 아는 정도	6.25
	책이나 신문, TV 등을 통해 열심히 공부	37.50
방문국가 수	평소에 쌓은 실력으로 소신껏 평을 할 수도 있음	31.25
	4개국 이상	93.75
	4개국 이하	6.25
지난 5년동안 제주도 방문횟수	1~4회	12.50
	5~10회	6.25
	부지기수로 많음	81.25

3) 참여연구원 각자가 조사대상 전문가들에 대한 면담조사(Interview)를 실시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식 질문지에 의한 우편조사(1995년 7월 1일~1995년 10월 30일)로 대체하였다. 조사수행 과정에서 주고 받은 질문과 응답의 주요 내용은 <표 6>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해외 및 도외거주 전문가들」에 비해 나중에 조사된 「도내거주 전문가들」에 대한 질문의 경우, 제주도의 국제화를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제약조건과 함께 국제화추진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의식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하여 조사해 보았다.

<표 5> 도내거주 전문가들의 관심과 경험

질문내용	응답내용	응답비율 (%)
정부당국의 세계화 추진 시책에 대한 관심도	관심없음	---
	관심은 있지만 아는 것이 별로없음	12.50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를 아는 정도	18.75
	책이나 신문, TV 등을 통해 열심히 공부	25.00
방문국가 수	평소에 쌓은 실력으로 소신껏 평을 할 수도 있음	43.75
	4개국	12.50
	5개국	12.50
	10~20개국	50.00
제주도내 거주기간	20개국 이상	12.50
	5년 미만	12.50
	5~10년	6.25
	10~20년	25.00
정부단계의 세계화 추진 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전반적인 참여의식 평가	20~30년	18.75
	30년 이상	37.50
	매우 적극적이다	---
	다소 적극적이다	6.25
	그저 그렇다	18.75
	다소 소극적이다	37.50
	아주 소극적이다	37.50

<표 6> 해외 및 도외거주 전문가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질문내용	주요 응답내용
21세기 제주도의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 동북아 새로운 질서예의 적응 ● 세계적인 휴양지 건설
제주도가 세계화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력은 높으나 여건조성이 필요함 ● 제주도민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 ● 어떠한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하느냐가 관건임
제주도 국제화/세계화 가능성의 가장 큰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지경학적 위치 ● 천혜의 자연조건과 환경의 쾌적성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역점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휴양산업의 육성 ●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 추진사업분야의 장·단기적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관점: 인프라의 구축 및 첨단화/세계화 교육의 정착/국제금융 및 물류유통기지의 건설 ● 단기적 관점: 외부자본의 유치/관광프로그램의 개발/외국어 교육
제주도 국제화/세계화의 귀감이 될 선진국가 내지 선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 하와이 ● 일본
제주도 국제화/세계화의 귀감이 될 선진국가 내지 선진지역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투자여건 ● 관광·휴양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 정부의 효율성
제주도가 교류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국가 또는 지역 (5개 정도 열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 대중국 교류의 관문 ● 싱가포르 ● 하와이
제주도의 국제교류시책 추진상의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국가 선정→교역확대 및 상호교류 증진→공동프로젝트 개발→동아시아의 연결망 구축 ● 일본, 싱가포르, 중국의 순으로 교류활성화 추진
국제화/세계화를 위해 제주도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문화적·전통적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전통적 자산은 취약함 ● 기후적경지역에서 형성된 독특한 생활문화 ● 신비의 섬, 평화의 섬이란 이미지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세계화 추진의지 ● 제주도 중심적인 배타성의 타파 ● 국제화/세계화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의 양성 ● 제주공동체의 주인의식 견지

<표 7> 도내거주 전문가들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질 문 내 용	주 요 응 답 내 용
21세기 제주도 비전의 전제와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의 모색 ● 미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안목 ●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제주도가 세계화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성은 적지않으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방향설정에 의존하는 바 클 것임 ● 우리나라의 세계화수준은 쫓아 갈 것임
제주도 국제화/세계화 가능성의 가장 큰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혜의 자연조건과 환경의 쾌적성 ● 지정·지경학적 위치
제주도 국제화/세계화 가능성의 가장 큰 제약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적인 사고의 도민인식 ● 인적 자원의 빈곤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역점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휴양산업의 육성 ● 우량의 농·축·수산물 생산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 추진사업분야의 장·단기적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관점: 인프라의 구축 및 첨단화/제주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문화환경의 조성 ● 단기적 관점: 관광위락시설의 확충/주도면밀한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외국어교육
제주도 국제화/세계화의 귀감이 될 선진국가 내지 선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본 ● 싱가포르 ● 유럽의 선진국들
제주도 국제화/세계화의 귀감이 될 선진국가 내지 선진지역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화된 시민의식 ●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우수한 개발모델 ● 장기적 관점의 발전계획수립과 연구개발투자
제주도가 교류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국가 또는 지역 (5개 정도 열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 중 국 ● 미 국
제주도의 국제교류시책 추진상의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중국→미국의 순으로 교류활성화를 추진
국제화/세계화를 위해 제주도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문화적·전통적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특한 생활양식 ● 청정한 자연환경 ● 주민의 근면성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 ● 자연환경의 훼손 ● 미풍양속의 파괴와 계층간 갈등
정부의 세계화 추진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의식이 저조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추진 ● 지나친 평등의식과 분배적 정의의 문제 ● 외부자본 유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해 도민들이 시급히 타파해야 할 의식과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성과 배타적 의식 ● 피해의식 및 소외의식 ● 불친절과 외국에 대한 이해부족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해 도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적극적인 주민의식 수렴 ●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유도 ● 민간교류의 확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해외 및 도외거주 전문가

해외경험이 풍부한 대부분의 해외 및 도외거주 제주출신인사들은 21세기 제주도의 비전을 세계적인 휴양지건설에서 찾으려 하였다. 따라서 세계화를 위한 역점사업에 있어서도 주로 관광사업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 세계화의 가장 큰 잠재력으로 천혜의

자연조건과 쾌적한 환경을 지적하였으며 지정·지경학적 이점과 관련하여 평화의 섬이란 이미지를 추가하였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제주의 문화적 자산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 국제금융, 물류유통기로서 기능성도 조심스럽게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전략으로서는 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외국어교육 등을 강조하였고, 중장기적 과제로서는 공항·항만·정보통신 등의 인프라구축과 함께 특화산업의 첨단화가 강조되었다. 제주도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귀감이 될 선진국가나 지역의 경우 싱가포르, 하와이, 홍콩 등으로 우선순위를 지적해 주고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관광·유통산업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자유로운 투자여건, 효율적인 행정체계, 휴양산업의 노하우(know-how)등이 주목을 받았다.

반면 국제교류의 활성화순위는 일본이나 중국내의 여러 지역이 열거되고 있다. 이는 지리적·역사적 연계성외에 일본의 경우 선진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이, 중국의 경우 새롭게 부상하는 교역대상국이라는 사실이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환동해와 환황해권의 경제개발을 의식한 견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인사들은 제주도 국제화의 관건이 도민의 국제화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였다.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화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적인 미래가 약속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들은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제주공동체의 주민의식을 고양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정신요소를 극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 도내거주 전문가

한편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검토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이들 역시 21세기 제주도의 비전을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건설에서 모색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들이 도외 및 해외거주 전문가들과 달리 제주문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일부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 기능성도 개선하고 있다. 제주도의 국제화를 위한 역점사업분야로서는 관광·휴양산업의 육성이 절대적인 점수를 받았고 기타 농수산업, 금융업, 문화산업 등도 주장되고 있다. 대부분이 제주의 훌륭한 자연환경을 국제화의 가장 큰 잠재력으로 지적하였으며 비록 소수지만 독자적인 문화전통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제주도 문화자산의 내용으로서는 사머니즘, 해녀, 조상숭배, 설화와 민요, 유배문화 등

이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다.

제주도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그 가능성이 국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하였지만, 혹자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엿보인다. 제주도의 국제화에 관한 제약요인으로서 는 도민의식의 폐쇄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으며 그밖에 정부당국의 불충분한 지원, 도행정능력의 한계, 인적 자원의 취약성, 경제력과 인프라부족 등이 중점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극복해야 할 도민들의 의식과 관행으로서 폐쇄성과 배타적 의식구조, 피해의식과 소외의식 그리고 불친절과 외국의 관행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들고 있다.

국제화를 위한 단기적 전략과제로서는 관광위락시설의 확충을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었고, 장기적 전략으로서 는 공항 및 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첨단화와 함께 지역고유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문화환경의 조성을 손꼽고 있다. 국제화를 위해 제주도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진국가나 지역으로서 는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을 추천하고 있다. 그 선정이유로서 한편에서는 선진화된 시민의식과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우수한 개발모델을 언급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지역이 관광과 무역 또는 정보의 중심지로서 효율적인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가 교류증대를 도모해야 할 국가 순위에 있어서는 일본이 압도적이었으며, 중국과 미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해외 및 도외거주 전문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경제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정부가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로서 행정당국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즉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유도과 공정한 분배에 대한 도민의 의구심과 불만 역시 이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원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전문가 의견조사와 함께 연구진들의 토의과정을 통해 정리된 국제화의 가능성을 고찰할 때, 국제화의 방향설정이란 차원에 의존하는 바 클 것이나 여하튼 국제화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제화를 저해하고 있는 제약조건에 대한 물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폐쇄적인 사고의 도민의식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빈곤이란 현실이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국제화의 관건일 것이다.

IV. 21世紀 濟州道の 國際化 비전

21세기는 세계적으로 탈이념·탈냉전의 신국제질서,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화 그리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환태평양시대의 전개와 세계인구의 40%, GNP의 50%, 세계무역의 42%를 점유하고 있는 APEC의 출범은 향후 아·태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역할이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이것은 기존의 정치·군사중심의 국제관계가 경제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구 13억 8천만명, GDP 5조 1천억\$ (전세계 23%)의 동북아지역은 2010년에는 북미와 유럽과 대등한 3대 경제권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2001년에는 중국시장의 성장과 북한의 개방 등으로 역내 교역은 22% ('93년; 13.5%)으로 성장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경제권은 한·중·일과 북한이 참여하는 환황해경제권과 한·중·러·일·북한 등이 참여하는 환동해경제권으로 구성된다.

21세기 제주도의 비전은 제주도민의 삶의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내적욕구와 제주도의 위상변화, 특히 지정·지경학적 위치의 변화에 맞추어 설정되어야 한다(<그림 2> 참조).

제주도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의 변화로는 ① 경제와 기술의 無국경화, ② 사회의 정보화와 지식화, ③ 문화와 의식의 지구촌화, ④ 행정과 정치의 분권화와 지방화, ⑤ 민의 다양성과 참여의식 증대, ⑥ 불확실성의 증대와 지구촌 문제의 대두 등을 들 수 있다. 제주도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내적 욕구의 분출 양상은 곧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모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①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추구, ② 환태평양시대 중심적 역할에 대한 기대, ③ 평화의 상징성 고양, ④ 제주공동체의 동질성 확보, ⑤ 인재육성 등이다. 제주도의 위상변화는 우리나라의 세계화 전략의 추진방향과 濟州道の 정책 방향에 따라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 세계화 전략의 추진방향은 ① 법·제도의 세계화, ② 인적 자원의 세계화, ③ 집행운영의 세계화, ④ 의식관행의 세계화 등이다. 濟州道の 정책방향은 ① 세계화 목표의 단계적 추진, ②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③ 민선지사의 선거공약 실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앞으로 전개될 환태평양시대의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지정·경학적인 장점을 21세기 제주도의 비전제시에 하나의 준거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한 32명씩의 국내외 및 도내거주 전문가의 의견조사결과와 해외현지조사를 통한 연구결과가 제주도의 국제화가 지향해야 할 21세기

비전설정에 적실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제주도의 국제화 비전의 3대영역을 설정·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참조).

제주도 비전의 3대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조적 제주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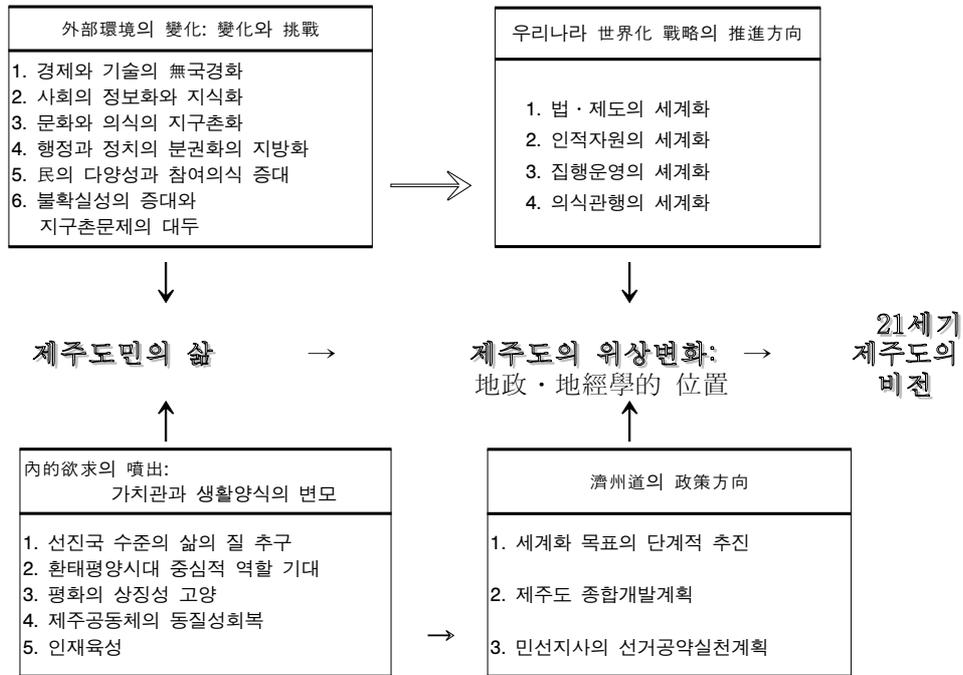
창조적인 사람은 자유인이다. 무언가 새롭고 다른 것을 만들어 내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를 할 수 있다. 그의 창조적 아이디어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모여 이룬 창조적 공동체는 “인간적”인 사회로 소득분배는 보다 공정하고, 주민들은 보다 정직하고 신중하며 친절한 사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첫번째는 세계속의 제주문화를 창조하려는 노력이다. 성공적인 국제화/세계화의 전제는 확고한 문화적 주체성과 자긍심의 확립이다. 자기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남의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같은 문화적 주체성과 정체성은 자기 사회와 문화에 대한 동일시와 지속감을 제공하는 공동체意識의 존재를 선행조건으로 한다. 공동체의 확립이 이루어지면 생활의 안정과 안전의 밑바탕이 되는 도덕성도 회복되게 된다.

두번째는 환경과 삶의 조화이다. 창조적 제주공동체의 비전은 모든 공동체 주민들의 개인적 성취가 가능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사회를 의미한다. 모든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각 부문의 고른 성장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과 복지의 조화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이점을 그대로 살려나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번째는 백만 제주인의 공동체형성이다. 제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높아지고, 자기 사회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이루어지면, 도외와 해외로 이주한 제주도민들과의 연대감을 높혀가야 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방문화의 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意識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주민과 이주한 제주도민과의 연대감은 필요하다.

<그림 2> 21세기 제주도 비전의 배경요인



2)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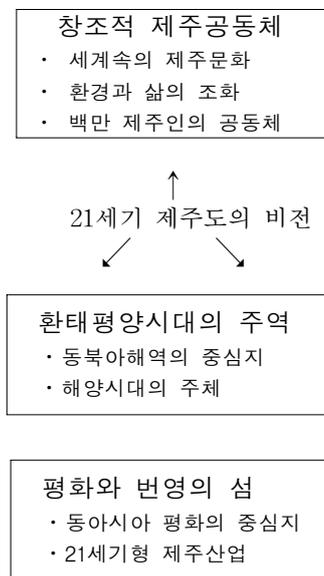
다가오는 21세기는 '해양 시대'이자 '아시아·태평양 시대' 또는 '환태평양 시대'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와 아울러 역내 지역주의에 따른 경제권 내지 협력권의 형성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경역내 국가들 가운데 조정자(Coordinator) 내지 균형자(Balanc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권으로 진출하는 길목이자 동북아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태평양권은 물론 동북아 해역의 국가들은 물론 島嶼와 地方自治體들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교류·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번째로 동북아 해역의 중심지로 육성이다. '환태평양도서협력권' 또는 '동북아해역협력권'은 제주도로 하여금 환태평양 내지 동북아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도서들 및 지방자치체들 상호간의 교류·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여 이 해역의 중심국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번째는 해양시대의 주체라는 인식이다. 해양은 수산·에너지·광물자원·공간 등 주요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 인류의 활동무대를 의미한다. 연안해역 및 항구 그리고 해양의 적극적 개발·이용을 통한 발전을 海洋化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양화를 통하여 제주도는 21 세기의 해양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해양화는 그 자체로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비전이자 동시에 ‘환태평양도서협력권’ 또는 ‘동북아해역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림 3> 21세기 제주도 비전의 3대 영역



3) 평화와 번영의 섬

첫번째는 동아시아평화의 중심지이다. 1991년 한-소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제주도는 단순한 국제관광지역에서 벗어나 평화의 섬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제주도는 자연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제주도는 현대사의 이념적 비극을 극복하고 남북의 화해,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분쟁해소를 주도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21세기형 제주산업의 육성이다. 21세기의 제주경제는 첨단기술개발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건설로 지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풍요로운 제주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이다.

V. 濟州道 國際化戰略과 課題

효율성있는 제주도의 국제화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차원의 정비가 중요하다.

1. 法·制度 및 組織體系의 整備

濟州道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로서 남서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島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주도는 單一制國家(unitary state)인 대한민국의 지방 행정구역인 道(province)에 불과하고 스스로 국제법주체성(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을 보유하거나 주권적 능력을 가질 수 없으며, 다만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승인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1)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제주도는 자치행정권에 의거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1항 참조). 그리고 헌법 제 117조 2항 및 제 118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조직권을 보유하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지출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의미하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적으로 보면 지방자치권으로서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입법권으로서의 조례제정권은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고 규칙제정권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구성하는 기관을 설치·조직·운영하는 권한인 자치조직권에도 많은 제한이 있어서,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및 내부조직 즉, 局·課의 설치 및 증감 또는 직원의 定數 등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제주도 차원의 조직체계 및 법·제도정비

제주도 차원에서도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현행의 조직체계 및 법·제도에 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條例의 제정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능동적인 國際化施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현행의 제주도의 국제통상교류조직은 그 기구와 기능이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은 현재 많은 제약이 있어서 지방의 특수성에 따른 특별한 행정 수요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방행정 기능 중 국제화 관련기능은 일반행정(기획관리, 공무원 인사 및 교육),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행정 등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 행정조직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은 각 지역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지방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주도의 국제통상교류조직인 국제통상협력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현행 제주도의 국제통상기능을 담당하는 '國通商協力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제주도에 국제통상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다른 市·道와 함께 설치한 것이지 제주도의 능동적인 국제화 시책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조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통상교류조직은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과, 유통과, 수출지원계, 유통기획계, 축산물유통계, 어정계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서 국제화 업무가 제주도 차원에서 통합·조정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업무 중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업무는 국제통상조직이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행정은 지역경제에 관한 한 현황 파악, 단순집행업무 수행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화와 관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자율적인 추진기구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제3섹타 방식으로 출범한 제주교역(주)도 제대로 통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산업경제국의 업무간섭과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협력통상실이 제주도의 지역경제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무역통상전담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기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부서가 제주도의 경우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통상실이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를 기획·조정할 수 있는 총괄부서로서의 위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제주도의 국제통상교류조직인 국제통상협력실의 위상은 제고되어야 하고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통상실의 기능 강화는 제주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국제협력통상실의 기능을 현재처럼 농수산·관광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해외교민과 공조에 한정해서는 안되고 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즉 국제통상협력실은 앞으로 국제협력 및 교류, 해외 제주교민과의 공조체제유지, 제주도 단위의 통상정책, 중소기업의 통상업무 지원, 제주지역 특화산업 육성, 제주도의 대대적인 국제홍보,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화를 위한 기반시설정비 등 제주도의 국제화와 관련된 업무를 연구·총괄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道의 국제통상협력실은 시·군의 국제화 업무를 제주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조율하는 종합기획·조정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셋째, 국제협력통상실은 민간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국제교류를 비롯한 제반 국제화 전략을 민간중심으로 이끌어내갈 수 있도록 지역국제화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통상협력실은 민간단체, 주민 등과의 조정 및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렇게 국제협력통상실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현재 실장의 직급을 지방 3급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협력통상실의 조직모형은 제주도의 경우 연구조직과 행정직을 혼합한 연구집행형의 조직설계방식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통상, 환경, 관광, 해양, 국제홍보, 특화산업 등의 전문연구직에 2개의 담당관제(국제교류협력 담당관과 통상담당관)를 설치하고 담당관제 밑에 몇 개의 계를 각각 설치하는 조직모형이라야 한다. 여섯째, 국제협력통상실의 소속은 일개의局소속이 아니라 도지사 직속으로 하여서 결재단계를 1단계로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국제협력통상실장이 도지사에게 직접적으로 국제교류 및 통상등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고 의논할 수 있게 된다. 일곱째,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에 채용된 소수의 전문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화에 대한 감각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및 전문지식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협력통상실의 국제화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다른 부서의 조직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즉 제주도의 국제화추진과제가 기획관리기능에 의해 상당부분 지원받아야 함을 감안할 때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기획관리실의 조직 및 기능을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획업무담당 관실의 담당업무확대, 기획계의 인력보강, 전문인력확보, 지역의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무담당관실의 기능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타 기획기능의 강화를 위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연계강화, 지역정보관리체계의 강화, 하위행정조직 기획실장의 권한강화 등의 방안이 있다.

② 제주도의 국제화를 위한 현행의 법제도 및 행정관행 정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효율화 및 자율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분배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적인 住民參與가 보장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邑·面·洞의 행정을 강화하고 대신 市·郡의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市·郡에 기능을 강화하여 邑·面·洞을 흡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이중행정의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법령과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行政情報의 공개 및 주민 열람 그리고 시민의 공청회·시민의 공개 질의·조례의 개폐 청구등의 시민의 행정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행정 공무원의 능력 제고와 의식 개혁을 위한 방안의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화와 민주화에 적합한 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방공무원들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화 자율화되지 않고 또한 중앙의 지시에 순응해 왔던 기존의 意識과 慣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기대할수 없게된다. 따라서 지방정부 스스로가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에 힘쓰는 한편 기존의 공무원들을 재교육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여야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능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專門行政과 責任行政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지방공무원들이 특수한 기술적 분야 및 행정·경영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전문지식의 습득 및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한다.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하여 地方自治體의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機構의 구성·국제교류·통상을 위한 해외 사무소의 설치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해외 파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일본의 고오지(高知)縣의 경우 條例를 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해외파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조례에 근거를 두어 ‘國際化推進協議會’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국제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구색을 갖추기 위한 委員의 위촉을 배제하고 국제화에 대한 안목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專門家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제주도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심의기구가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최근에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 재단인 '한국 지방자치단체 교류 재단'(Korea Local Authorities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Relations)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1988년에 일본의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의 연구·수집·분배 그리고 지방정부 및 단체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해외 지방정부들과의 교류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회'(CLAIR;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Relations)가 설립되었으며 뉴욕·런던·파리·싱가포르·서울 등의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國際化의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의 국제화'를 기본 과제로 포함하도록 종합개발계획을 보완하거나 '道民憲章'의 제정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住民主體의 종합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개발 특별법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및 시행은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의 홋카이도의 경우는 계획이 수립 및 시행이 중앙정부의 기구로 설치된 '북해도 개발청'(HDA: Hokaido Development Agency) 및 그 산하의 '북해도 개발국'(HDB: Hokaido Development Bureau)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조직체계상 HDA는 계획과 조정 임무를 담당하고 HDB는 사업계획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특별법의 目的이나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국제화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도종합개발계획을 보완하거나 도민헌장등의 제정을 통하여 발전 전략으로서의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를 선언하고 제주와 국제사회 또는 세계를 전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도 제주도의 국제화를 위한 활동을 법과 제도로써 조정·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도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제화 관련 기능 중 많은 부문을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국제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중앙부처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첫째, 내무부에서는 각 지자체 국제화조직의 정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간 업무의 협력, 조정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지자체가 연합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국제교류재단>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외무부에서는 지자체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외국에 대한 정보를 지방에 제공하여 지방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를 지원한다.

셋째, 상공자원부에서는 지방산업의 국제화·고도화를 위한 투자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기술정보 지원체계의 확립을 지원한다. 넷째, 건설부에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산업 및 관광단지조성을 지원해주고 국가경제적 입장에서는 균형추구, 효율적 국토관리 및 이용체계정립 등의 정책기조하에서 각 지역개발의 기본방향 및 필요한 사업내용을 제시한다. 다섯째, 재경원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완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이들의 투자가 지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國際化 戰略

이처럼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최대한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화전략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목표를 두어야만 되는 10대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1) 전통문화의 세계화

세계화는 地方文化의 육성을 요구한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방의 국제화·세계화가 지방의 고유한 특성이나 正體性(identity)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 주민의 의식과 문화는 그 지방의 정신적 자산이며 자랑거리이다. 여기서 의식이나 문화의 고급화·인류화를 말하는 것은 지방주민들이 자신이 의식과 문화를 포기하고 외국의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스스로의 자존의식이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지방주민으로서 특수한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일 뿐(이은재, 1991), 지방주민들이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 대하여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며 그 지방의 전통이나 문화를 유지하고 보다 고도화시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지방적인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지방의 경제적 분야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환경친화적 복지사회의 건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체는 지방 산업의 육성 및 경제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는 부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발전 전략 내지 개발의 목표를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에 두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인

간다운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이 자연적·인문적 환경 및 생태계에 적합하고 지방주민이 실생활의 필요에 상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住民主體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및 환경의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발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회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체의 자율적인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지방자치체에 대하여 보다 많은 노력과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

앞으로의 지방자치체는 國際化/世界化를 통하여 지방의 활성화(中村尙司, 1990: 123~133)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多元的 外交主體의 하나로서 외국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체와는 물론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국제교류 내지 협력을 통하여 經濟的 活性化를 달성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 규범·의식·문화를 고급화, 인류화하여 인류공동체 의식 및 문화감각을 바탕으로 세계사회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국제화/세계화는 곧 지방정부 및 지방주민의 스스로 국제적 규범 및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은 물론 외국 또는 외국인의 이질적인 관습 및 문화도 포용할 수 있는 開放性(openness)과 寬容性(tolerance)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지방 차원에서도 모든 규범 및 질서를 국제적·세계적 수준에 맞추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나가고 의식과 행동을 보편적 행동준칙에 맞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해외제주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세계제주인 대회 개최의 연례화이다.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인류발전과 세계변화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각자 주어진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과 명성을 발휘하는 제주인들이 많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제주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제주의 발전에 지혜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외제주인 세계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도내외 100만 제주공동체설립에 하나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해외도민들에게 道政과 고향소식 등을 널리 알리고 교민사회의 성공사례 등을 제주도민들에게도 전파하여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정보 등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해외교민들의 사업투자를 유도하기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할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해외교포 또는 자녀들을 공직에 활용시키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지원하에 있는 재단법인체로서 국제회의의 유치 및 기타 국제교류사업과 지역경제의 세계화와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 및 민간차원의 국제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제주국국제교류재단’이 설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업무를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효율성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4) 지자체 및 도서간 교류협력

도서간협력체제의 재정비이다. 현재 하와이·발리·사할린·하이난 섬 등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 및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자매결연대상 도서를 재검토하고 자매결연관계를 보다 확대 심화시켜 상호보완관계에 기초한 실질적인 島嶼協力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된다(그림 3 참조).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 및 북해도 그리고 대만의 평구섬 등 여름과 겨울, 산과 바다 등 관광자원 측면에서 상호보완관계를 견지할 수 있는 도서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해야 한다(그림 4 참조).

한·중·일 지자체간의 협력포럼의 결성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연안해협 市·道·縣知事회의’⁴⁾를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중국의 상해, 항주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해역 연안의 지방자치체간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상설적인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의 창설을 모색하는 한편 제주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러한 지방자치체의 국제협력기구의 본부를 제주도에 유치하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를 제주도에 유치해야 한다.

5)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연계

국제물류기지 및 상품전시·판매센터의 설립이다. 국제물류기지 및 국제적인 상품판매 전시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제주도를 동북아 해역의 무역·교류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한·중·일·러·북한 등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環황해권’(한·중·일·북한)과 ‘環동해권’(한·일·중·러·북한) 등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 및 기타의 무역규제들을 제거함으로써 상품의 유통판매 등 무역량을 확대하고 국제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항(Free Port) 내지 자유항지역(Free Port Zone)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를 환태평양 내지 동북아해역의 교류협력 및 휴양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해양과학기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침

4) 본 회의는 1992년 제주도에서 처음 결성되어 현재까지 착실하게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교류·어업자원의 공동조사·공무원의 상호연수교류·환경관리 등 실무적인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규슈 북부의 3현인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등이다.

단시설을 갖춘 무역항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 자유항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해양화전략

마리노베이션(Marinovation)전략의 수립이다. 해양산업이란 경제주체의 투입물과 산출물이 해양이라는 지리적 공간적 특수환경과 수요 및 공급관계에 있는 모든 산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해양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 제주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산업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양의 생물자원은 대부분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이어서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생산잠재력은 육지의 산업생산력을 능가할 수 있다. 최근의 인공양식 또는 해양목장화에 의한 어업생산성의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해양목장화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첨단공학과 해양산업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과학기술도시(Marine Technopolis)의 건설이다. 이것은 과학기술과 해양문화 및 자연환경이 조화된 도시 및 국토의 개발을 촉진하여 제주의 지역경제와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제주고유의 해양적 특성을 개발 고양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해양과학기술도시의 건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전략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해양과학기지' 내지 '해양연구센터'는 가능한 한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해양과학기술도시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교육·훈련 기능의 수행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대학부설 해양관련 연구소와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과학기술처는 제주도 남서쪽 152km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暗礁인 소코트라 岩(Socotra Rock), 즉 파랑도에 오는 97년까지 해양과학조사 및 기상관측활동을 위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파랑도에 건설되는 해양과학기지를 위한 인력, 물자 및 정보 통신지원체계가 본토로부터 제주도를 거쳐 파랑도까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제주도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나갈 것이다.

해양엑스포 및 해양올림픽의 개최이다. 제주도는 해양도서로서 해양의 관광자원화의 잠재력이 풍부한데도 그 체계적인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제주지역의 주변 해양은 '해양형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도 않고 있는데 제주도의 해양은 유망한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山岳관광자원과의 연결을 토대로 종합적인 관광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의 고유한 해양적 특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 Expo'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양엑스포를 통하여 제주도의 전반적인 산업·경제·과학기술·문화적 수준 및

사회간접시설의 수준을 10년정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양엑스포의 개최를 위한 시설로서 ‘해양박물관’ 및 ‘해양민속관’, ‘환태평양전망타워’, 그리고 대규모 ‘해양레크레이션 공원’ 등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환태평양지역의 휴양 및 스포츠를 겸한 레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올림픽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한다. 해양올림픽을 통하여 레저와 스포츠 그리고 관광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 해양올림픽을 통하여 해양스포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주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상하거나 과학기술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소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개방계획안을 한반도의 동·서·남해안 중심의 개발전략으로 되어 있을 뿐, 동북아 해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의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으로서 해양화 전략에 있어서 제주도를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제주도로써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간과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 가능성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될 것이다.

7) 평화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유치

남북교류 및 통일센터의 설립이다. 지금까지 통일과 관련된 남북회담은 주로 판문점과 서울 그리고 평양에서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위의 3곳은 장소 자체가 회담대표들에게 화해보다는 제로섬게임의 인식이 박혀있다고 할 수 있다. 탈냉전을 맞이하여 통일회담의 개최지로서 새로운 장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91년 한-소 정상회담은 제주도를 냉전을 허무는 화해의 장소로 부각시켜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분단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남북 이해의 충돌이 적은 제주가 새로운 남북회담과 교류의 장소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가 남북한의 만남과 교류의 센터로 개방함은 동아시아의 제반지역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평화와 협력의 장소로서 연결될 수가 있다. 관련 국제기구가 들어설 수 있는 최적지라 할 수 있는데 동아시아의 제네바나 비엔나와 같은 국제 도시로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8) 지방산업의 첨단화

생명공학단지의 건설이다. 제주도는 동지나해와 북단난류가 부딪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 중앙에 한라산이 자리잡고 있어서 생물의 다양한 상태가 토종 그대로 있는 ‘동식물 토종의 세계적인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초적인 자연과 다양한 생물을 가지고 있

는 제주는 21세기에 가장 유망되는 생명과학 연구의 최적지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주를 세계적인 생명공학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21세기 제주 미래에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다.

첨단농업의 육성이다. 영농의 기계화 과학화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첨단기술의 지원을 받아 국제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수출형 농업구조를 정착시키며 농업정보를 활용한 시장지향형 농업생산체제의 확립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의 조성이다. 천혜의 자연조건과 환경의 쾌적성 그리고 기후접경 지역에서 형성된 독특한 지역생활문화라는 특성을 더욱 살려 나감으로써 국제관광시장에서 손꼽힐 수 있는 지역적인 명성을 획득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문관광단지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개발목표를 세계적인 이미지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선택관광(Option Tour)의 폭을 단계적으로 배가시켜 나감과 동시에 국제적 이벤트의 개최를 통하여 관광프로그램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9) 인프라의 확충

신공항과 무역항의 건설이다. 연륙교통수단의 확충이란 국내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환태평양시대와 동아시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만한 신공항의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직항노선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화순항을 국제무역항으로서 건설해 나가려는 계획을 진일보시켜 동아시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한 도서지역으로 부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된 지구촌 시대에는 과학기술력, 새로운 조직방식 및 문화 관련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선진국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의 각 부문을 어떻게하면 네트워크화하여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의 국제화수단으로서 정보화는 하부시설의 정비가 급선무이다. 지역정보의 공유로 지역공동체의 의식강화와 정보문화를 창달시켜야 한다.

10) 세계화교육

도민현장의 제정이다. 국제화·세계화의 의지, 미래지향적 자세, 21세기 제주도의 3대비전이 일어나도록 제정해야 한다. 현장은 상징성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제주공동체의 의식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제주도의 특성과 개성을 널리 알리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할 것이다.

이상을 圖解化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국제화의 10대전략과 실천과제

10대 전략	과 제	비고
전통문화의 세계화	1) 전통문화의 발굴과 육성 2) 역사유적지의 개발 및 박물관(역사, 민속) 기능의 강화	
환경친화적 복지사회의 건설	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4) 복수해법위의 확대 및 재원 확충	
해외제주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5) 세계제주인대회 개최의 연례화 6) 해외제주인 지원 및 우수인력 유치 7) 해외지역내 제주센터의 건설	*** ***
자치체 및 도시간 교류협력	8)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과 운영 9) 자매결연관계의 내실화 10) 도시간 협력체제의 재정비 11) 한·중·일 자치체간 협력 포럼의 결성 12) 세계섬문화 축제 13) 국제 이벤트의 개최 14) 세계도서연구 및 교류센터	*** *** ***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연계	15)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연결을 위한 물류기지/국제상품전시관매지	***
해양화	16) 첨단어업기술, 생물공학, 유전공학을 바탕으로 한 마리노베이션(Marinovation) 17) 해양과학기술도시(해양과학기지 및 해양연구센터의 설립) 18) 해양융합개발계획의 수립 19) 해양엑스포(해양민속관, 해양박물관, 해양레크레이션 공원) 및 해양올림픽의 개최	*** *** ***
평화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유치	20) 남북한 교류및 통일센터의 설립 21) APEC 정상회담의 개최유치 2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유치 23) 평화관계 연구소 및 국제기구 유치	*** ***
지방산업의 첨단화	24) 생명공학연구단지 건설 25) 컨벤션 센터의 설립 26) 실버병원의 유치 27)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 조성 28) 첨단농업의 육성 29) 농·축·수산물의 수출촉진 30) 국제면세지역의 추진	*** *** *** ***
인프라의 확충	31) 세계적 수준의 신공항과 무역항의 건설 32) 국제항로의 확충 33) 텔레포트의 건설	*** ***
세계화교육	34) 도민협장의 제정 35) 세계시민교육	***

주: 비고란의 ***표시는 중점추진 과제임

VI. 結論: 濟州道 國際化의 推進段階

위에서 논의된 제주도 국제화 전략과 실천과제는 장기적 목표하에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분야별로 제1단계: 1996~2000년, 제2단계: 2001~2010년, 제3단계: 2011~2020년까지 등 3단계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설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화추진단계,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을 토대로 해서 구성하였다. 이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국제화 추진단계

분야	전략	제1단계: 1996~2000년	제2단계: 2001~2010년	제3단계: 2011~2020년
교육/문화	1) 전통문화의 세계화	- 전통문화의 발굴과 육성 - 역사유적지 개발 및 박물관(역사·민속)기능강화		
	2) 세계화교육	- 도민현장의 제정 - 세계시민교육		
	3) 해외제주인과의 네트워크구축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의 연례화 - 해외제주인 지원 및 우수인력 유치	- 해외지역내 제주센터의 건설	
사회/환경	4) 환경친화적 복지사회건설	-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 복지수혜범위의 확대 및 자원확충		
산업/경제	5) 지방산업의 첨단화	- 컨벤션 센터의 설립 -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 조성 - 첨단농업의 육성 - 농축수산물의 수출촉진 - 국제면세지역의 추진	- 생명공학연구단지의 건설 - 실버병원의 유치	
	6) 인프라의 확충	- 국제항로의 확충 - 텔레포트의 건설	- 세계적 수준의 신공항과 무역항의 건설	
해양화	7) 해양화전략	- 해양과학기술도시(해양과학기술지 및 해양연구센터의 건설) - 해양융합개발계획의 수립	- 해양엑스포(해양민속관, 해양박물관, 해양레크레이션공원) 및 해양올림픽의 개최	- 첨단어업기술, 새울공학, 유전공학을 바탕으로 한 마리노베이션(Marinnovation)
국제교류	8) 자치제 및 도서간 교류협력	- 제주국제교류재단의 설립과 운영 - 자매결연관계의 내실화 - 도서간 협력체제의 재정비 - 한·중·일 자치체간 협력포럼의 결성 - 세계섬문화 축제 - 국제이벤트의 개최 - 세계도서연구 및 교류센터		
	9)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연계		-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연결을 위한 물류기지/국제상품전시 판매지	
	10) 평화회의개최 및 국제기구유치	- 남북한교류 및 통일센터의 설립 - APEC 정상회담의 개최유치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유치 - 국제관계연구소 및 국제기구유치		

그 다음 실천과제를 3단계의 범주속에 배치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로 고려하였다. 즉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가 여부와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었는가 여부이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장애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를 1단계 사업으로 하여 모든 과제를 연속선상에서 3등분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세계화전략을 참고하여 모든 사업이 가능한한 정부계획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문화부문의 실천과제는 의식의 개혁이 모든 과제에 선행한다고 보아 1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였고 지속적인 추진사업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해외지역 제주센터의 건설은 충분한 사전조사의 필요성과 소요예산확보, 기타 대상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사회/환경부문의 실천과제는 우리 사회가 이미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였고 질적인 삶의 욕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반면 생태계의 파괴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고 보아 쾌적한 환경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즉각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두번째 범주의 실천과제를 2단계까지만 적용시킨 것은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최소한의 문제해결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산업/경제부문의 실천과제는 세계화의 요체가 사실상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볼 때 실천적인 승意가 매우 큰 분야이며, 따라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즉각적이며 지속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성격상 인프라의 구축과 첨단산업의 유치는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신공항이나 무역항건설 또는 생명공학연구단지 건설 등은 현실적 여건상 부득이 제2단계의 사업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버병원의 유치문제는 과제의 성격이 촌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2단계로 유보하였으며, 반면 국제면세지역의 추진은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추세에 비추어 적어도 2단계의 시기까지는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해양화는 21세기의 제주도가 세계를 향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위해서 해양종합개발계획이 시급히 요청되며 적어도 해양과학기지 및 연구센터로서 역할수행이 조만간 기대된다. 연후에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각종의 시설확보와 국제행사개최 등을 중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첨단어업과 유전공학을 바탕으로한 마리노베이션을 목표로 한다.

국제교류부문의 실천과제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외교적 수완과 실천의지, 창의력 등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부분적으로는 이미 착수중인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

가 기대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반 여건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자치체 및 도시간 교류협력과 달리 평화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유치는 중앙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으나 기타의 심각한 장애요인은 없는 것 같다. APEC회담유치는 사전에 결정된 일정을 감안하여 2단계까지의 실천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도서지역의 취약한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국제물류기지의 건설은 제주경제의 우선적 과제이나 자유항 또는 그 전 단계로서 국제면세지역 선포 등의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준비기간을 예정하여 2단계에 속하는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화의 추진단계는 하나의 이념형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사업은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3단계는 제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필요성에 따라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고 앞·뒤단계의 선후를 바꿔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의 국제화 추진단계 설정이전에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제주도의 국제화 모형에 대한 정당성을 도민들로 부터 획득해내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제주민이 제주도의 국제화가 곧 도민들의 복지와 연결된다는 가치관을 공유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는 제주도의 국제화에 대한 도민들과의 유기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한편 제주민들도 이제 국제화는 역사적 필연이며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세계화속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제주민이 응집된 힘을 키워서 제주지역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키워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이래야 제주도의 국제화는 제주민들에 의하여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순조로와야 제주도의 국제화를 위한 도민의 에너지를 집약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거창한 제주도의 국제화계획도 그것은 하나의 지면계획(Paper work)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제주도의 자매결연도시

<그림 5> 제주도와 협력관계가 필요한 도서

參 考 文 獻

- 고충석, “국제화시대 어떤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하는가”, 「제주도 地方議政」, 제1권 제1호, 1994, pp. 33~45.
- 김경동, “국제화와 지방화”,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한국사회학회(편), 나남, 1994, pp. 57~78.
- 김경원, 「국제화의 개념 및 추진기본방향(1차시안)」, 국제화추진위원회, 1994.
- 김안제,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박문각, 1994.
- 김진호 외, “한국의 정치체제와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5권 제2호, 1993, pp. 125~156.
- 김진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증대방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32회 지방행정연수대회 보고서, 1994.
- 김진호, “지방정부의 민주화: 제주도 사례에서 본 관용적 맥락과 전략”,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1994, pp. 1301~1324.
- 김관석, “세계화시대의 정부부문 경쟁력 제고: 도전과 기회”,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1994, pp. 1525~1548.
- 김종기·주성재, 「지방의 국제화추진전략」, 한국개발연구원, 1994.
-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서울프레스, 1994.
- 박정택, 새로운 국제행정개념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1호, 1993, pp. 255~277.
- 신순호,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특성과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송재호, 「동아시아 도서관광구상: 타당성검토와 실천적 전개방안」,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 1995.
- 안문석·김정수, 「행정의 국제화」, 국제화추진위원회, 1994.
- 이상우 외, 「현대국제정치학」, 나남, 1992.
- 이은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1990.
- 이은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실태 및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1994, pp. 1549~1564.
- 이용현, “지방국제화의 현황과 과제의 실증적 분석과 행정대응방안”,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1994, pp. 1565~1581.
- 이주희, 「관광·레저의 4계절 수용대책: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 이종오, “지방화시대의 전개와 문제”,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한국사회학회(편), 나남, 1994, pp. 107~123.
- 임희섭, “한국사회의 지방화와 국제화의 정책적 전망”,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한국사회학회(편), 나남, 1994, pp. 431~448.
-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의 세계화 방안」, 연구보고서, 1995
- Toffler, A., 「제3의 물결」, 김 태선 외역, 기린원, 1989.
- 内山秀夫 外編, 「國際人の條件」, 東京: 三嶺書房, 1983.
- 内田孟男 外編, 「多元的共生と國際ネットワーク」, 東京: 有信堂高文社, 1991.
- 内田孟男 外編, 「地球社會の危機と再生」, 東京: 有信堂高文社, 1990.
- 大津浩 外, 「自治體外交の挑戰」, 東京: 有信堂, 1994.
- 北海道開發廳 編, 「北海道開發 レポート'94」, 1995.
- 松下圭一, 「自治體の國際政策」. 東京: 學陽書房, 1988. (김진호 역, 「국제화시대와 지자체역할」, 제주문화, 1992.).
- 日比野光伸, 「國際化と港」, 東京: 成山堂書店, 1994.
- 長洲三 外, 「自治體の國際交流」, 東京: 學陽書房, 1983.
- 中田正一, 「國際協力の新しい風」, 東京: 岩波書店, 1991.
- 札幌市, 「第3次 札幌市 長期 總合計劃」, 1988.
- Briguglio, Lino & John Kaminarides ed., 「Islands and Small States」, Oxford : Pergamon Press, 1994.
- Briguglio, Lino,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heir Economic Vulnerabilities, World Development」, 23(9), 1995, pp. 1615~1632.
- Goldborough, James D., “California’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72(2), 1993, pp. 88~96.
- Handel, Micha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lass Company, 1981.(김진호 역, 「약소국생존론」, 대왕사, 1995.)
- Kenichi, Ohmae, “The Rise of the Region State,” 「Foreign Affairs」, 72(2), 1993, pp. 78~87.
- Mittelman, James H, “Rethinking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the Context Globalization,” 「Third World Quarterly」, 16(2), 1995, pp. 273~295.
- Sapporo Ambassador, 5(21), 1991.
- Wheelen, Thomas L., 「Strategic Management」, N.Y.: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